

사이버 명예훼손



**이 은 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Q: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종종 구하던 20대 학생 A. 어느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나쁜 소문이 자자한 B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유독 B편의점이 구인광고를 자주 올리는 것을 본 터라 A는 게시글에 "구인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니 참고하십시오"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런데 이를 확인한 B편의점 점주가 A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죄(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때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우선 A가 쓴 댓글이 '명예훼손' 발언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판단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그런데 A가 쓴

"구인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다"라는 말은 그것만으로는 B편의점 점주에 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말한 사안에 대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판 바도 있다.

이처럼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더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나 소비자 대응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행위나,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불만을 토로한 글을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 등에 올린 사안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내용을 조금 바꿔, B편의점 점주가 아니라, B라는 ID를 가진 사람이

쓴 글에 A가 "B는 나쁜놈, 바보" 등의 욕을 댓글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이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 달리를 추정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ID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ID가 현실세계의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의 경우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쉽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소나, ID에 대해 약간이라도 불만스러운 투의 글을 게재하면 발끈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적인 글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었다. '사실'을 썼고, '모욕'의 경우 누구인지 특정이 안될 때' 이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칫 악명성을 이용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쓰거나, 악의적인 글을 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코스콤 신입직원, 저소득가정 주택개선 봉사

코스콤 신입직원들이 지난달 31일 '사촌 자매결연'을 맺은 춘천명월마을 내 저소득 노인가정을 방문, 외벽공사 및 도배, 장판교체 작업 등 노후주택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신입사원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및 동료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코스콤은 밝혔다.

/코스콤

이노비즈協, 2017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정부 고용지원 사업 시 가산점



이노비즈협회가 '2017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스템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인증제로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 기준을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해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과 구인, 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인증 기관은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이미지)를



기관에 뽐냈다. 협회는 이번에 운영계획 수립과 실행, 업무표준화와 매뉴얼 적용,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 수준 등 운영 활동과 인적자원관리 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고용지원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등 우대 혜택도 받는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014년에 이어 2회 연속 우수기관에 뽑혔다. 협회는 이번에 운영계획 수립과 실행, 업무표준화와 매뉴얼 적용,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 수준 등 운영 활동과 인적자원관리 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치아손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나이가 들면 신체나 장기에 각종 질환이 생기듯 치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실될 위험이 높다. 치아가 손실되면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뇌로 가는 혈류를 떨어뜨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치아의 일부가 없는 부분무치아 환자나 치아가 아예 없는 무치아 환자의 경우 하루빨리 의치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긴 치료기간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노년층이 다반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듯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50.5%, 이중 28.6%는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치아손실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치주질환'이다. 흔히 잇몸병이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면서 지지해주는 잇몸(치주), 잇몸뼈(치조골), 치주인대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치석과 충치가 주요 원인이다.

치료방법은 염증의 진행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치은염(gingivitis)'의 경우 증상이 비교적 가벼워 조기치료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잇몸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면 잇몸뼈 주위까지 염증이 퍼지는 '치주염(periodontitis)'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치주염 치료는 잇몸을 절개한 뒤 염증 부위를 긁어내는 시술을 시행하면 되지만 치아 뿌리 안쪽 깊은 곳까지 염증이 확산된 경우에는 치아를 잡아줘야 할 잇몸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 최악의 경우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염증으로 인해 잇몸뼈가 녹아내린 경우에는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한 후 임플란트를 심거나 틀니를 해야 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과 같은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민을신치과 원장



미래에셋생명, 사랑 나눔의 꽃 행사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31일 서울 구로구 르노빌빌통합센터에서 자사 임직원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해 독거노인과 일대일 짝꿍을 이뤄 직접 꽃바구니를 만들고 노인들의 자택을 찾아 안부를 살폈다고 2월 1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31일 서울 구로구 르노빌빌통합센터에서 자사 임직원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해 독거노인과 일대일 짝꿍을 이뤄 직접 꽃바구니를 만들고 노인들의 자택을 찾아 안부를 살폈다고 2월 1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동원시스템즈, 한국마케팅프론티어상 수상

동원시스템즈가 1일 한국마케팅학회에서 주최하는 제25회 한국마케팅프론티어대상을 수상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지속적인 사업다각화와 신시장 진출, 중앙기술연구소를 통한 신소재·신기술 개발, 글로벌경영 성과 등을 인정받아 '기술혁신과 B2B 마케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동원시스템즈는 국내 최대 패키징기업으로서, 연포장재부터 캔, PET, 병, 산업용 필름, 알미늄 등 거의 모든 소비재의 포장에 가능한 국내 유일한 종합포장재회사다. 최근에는 소재부문에서 특



허를 받은 탄성부직포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손, 발, 헤어 마스크팩을 뷰티시장에 선보이기도 했다. 조금전 동원시스템즈 사장(사진)은 "앞으로도 포장재 카테고리 전 부문에 걸친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동화약품 유광열 신임사장 취임

유광열 동화약품 신임 사장이 1일 취임했다. 유 사장은 취임사에서 "120년 간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대표해 온 동화약품의 15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이라며 "동화약품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유 사장은 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멤피스 주립대에서 MBA를 수료했다. 질레트코리아, 한국존슨앤드존슨, 이약품 유통업체 지오영 영업총괄 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인용 기자

인사

- ◆여성가족부 ◇국장급 정보 △정책기획관 최성지 △교육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황윤정 ◇과장급 승진 △가족문화과장 김성철 ◇과장급 전보 △다문화가족과장 정희진 △권익보호과장 조성균 △권익기반과장 장미경 △교육 파견(세종연구소) 장석준
- ◆한국문화재단 △기획조정실장 김갑도 △문화상품실장 조진영 △한국의집관장 안태욱 △문화유산활용실장 신진라 △문화예술실장 김민영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 박해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안동찬 △경영지원실장 나정희 △감사실장 두혜승
- ◆한국지엠(GM) △기술연구소 부사장 전주명
- ◆NH투자증권 ◇부장 선임 △해외영업부 이왕상 △투자전략부 오태동 ◇부장 전보 △기업분석부 송재학 △센터장 전보 △FIC C리서치센터 강현철
- ◆조달청 ◇국장급 전보 △조달관리국장 김선병 △구매사업국장 강경훈 △서울지방조달청장 변희석
- ◆특허청 ◇과장급 전보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구영민 △복합디자인심사팀장 이대진 △계측분석심사팀장 김근모 △전자제품심사팀장 김용훈 △특허심판원 심판관 박재일
- ◆NH농협손해보험 △전략총괄부부장 이익형

- ◆동양생명 ◇임원 선임 △상무부(IT운영담당) 김준영
- ◆KB자산운용 ◇신규 선임 △채권운용본부장 전우 임광택

부음

- ▲ 이안순 씨 별세, 김석균(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장) 씨 모친상 = 1월 31일 오후 8시, 거제 맑은샘병원 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2월 3일, 010-2589-1184
- ▲ 변지환 씨 별세, 정준호(삼성카드 부사장) · 준영(신한은행 총무로 기업금융센터장) · 경욱(온양한울중학교 교사) 씨 모친상, 홍종욱(개인사업) 씨 장모상 = 1월 3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 2월 2일 오전 9시, 02-2258-5940
- ▲ 이광평 씨 별세, 장병기(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사무소 부읍장) 씨 장인상 = 1월 31일 오후 4시,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 043-210-54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정 규
편집국장 이 정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